



미 증시, 실업자 증가, 성장주 강세 등으로 상승

미국 증시 리뷰

8 일(목) 미국 증시는 유로존의 기술적 침체 진입, 주요 중앙은행들의 긴축 우려가 지속됐음에도, '21 년 10 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신규 실업자수 급증 소식, 테슬라(+4.6%), 엔비디아(+2.8%) 등 성장주 강세에 힘입어 상승 마감(다우 +0.5%, S&P500 +0.6%, 나스닥 +1.0%). 업종별로는 경기소비재(+1.6%), 기술(+1.2%), 필수소비재(+0.7%) 등이 강세, 부동산(-0.6%), 에너지(-0.4%), 소재(-0.4%) 등이 약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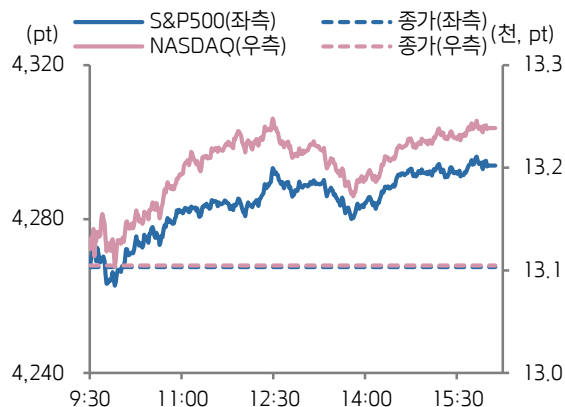
미국의 주간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는 26.1 만건으로 전주(23.3 만건) 및 컨센(23.5 만건)을 모두 상회하며, '21 년 10 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 4 주 이동평균 실업수당청구건수도 23.7 만으로 전주(23.0 만건) 및 컨센(21.0 만건)을 모두 상회. 4 월 도매재고는 -0.1%(MoM)으로 전월(0.0%)에 비해 감소세로 전환했으나, 예상치(-0.2%)는 소폭 상회.

유로존의 1 분기 경제성장률 확정치는 -0.1%(QoQ)로 이전 속보치(+0.1%) 및 컨센(+0.0%)를 모두 하회. 지난 4 분기(-0.1%)에 이어 2 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함에 따라 기술적인 침체에 진입.

중국 5 대 대형 국유은행은 8 일부로 위안화예금 공시금리를 기존 0.25%에서 0.2%로 인하하기로 결정. 증권시보에서는 이번 추가 인하 결정이 은행들의 순이자마진 부담을 완화시키면서 금융시스템 안정에 기여할 것이며, 인민은행의 대출우대금리 추가 인하의 동력이 될 것으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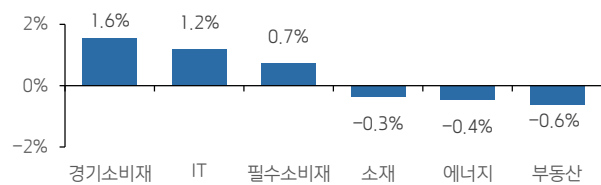
이상형 한은 부총재보는 통화정책신용보고서 설명회를 통해, RBA 와 BOC 의 서프라이즈성 금리인상과 관련해 (여전히 한국의 인플레이션을 안심할 단계는 아니지만) 호주와 캐나다의 소비자물가가 4 월에 반등했다는 점이 금리인상 배경이라고 지적하면서, 한국은 4~5 월 소비자물가가 예상대로 둔화되고 있기에 이들과 같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 향후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인플레 전망, 연준의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큰 상태인 만큼, 인상 사이클이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급.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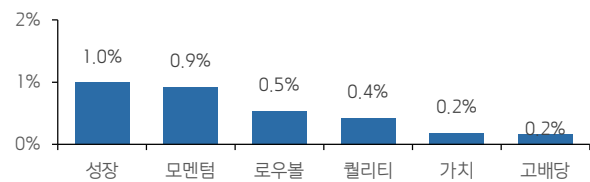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코스피	2,610.85	-0.18%	USD/KRW	1,304.10	+0.02%
코스피 200	342.75	-0.14%	달러 지수	103.32	-0.75%
코스닥	876.13	-0.52%	EUR/USD	1.08	+0%
코스닥 150	1,342.74	-0.53%	USD/CNH	7.12	-0.01%
S&P500	4,293.93	+0.62%	USD/JPY	138.91	-0.01%
NASDAQ	13,238.52	+1.02%	채권시장		
다우	33,833.61	+0.5%	국고채 3년	3.547	+7bp
VIX	13.65	-2.08%	국고채 10년	3.632	+11bp
러셀 2000	1,880.78	-0.41%	미국 국채 2년	4.515	-4.2bp
필라. 반도체	3,514.32	+1.07%	미국 국채 10년	3.718	-7.7bp
다우 운송	14,401.16	-0.04%	미국 국채 30년	3.888	-5.7bp
유럽, ETFs			원자재 시장		
Eurostoxx50	4,297.68	+0.13%	WTI	71.29	-1.71%
MSCI 전세계 지수	665.76	+0.47%	브렌트유	75.63	-1.72%
MSCI DM 지수	2,866.59	-0.4%	금	1978.6	+1.03%
MSCI EM 지수	995.41	+0.7%	은	24.35	+3.48%
MSCI 한국 ETF	65.66	+1.39%	구리	379.5	+1.04%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1.39% 상승, MSCI 신흥국 ETF 는 +0.71% 상승. 유렉스 야간선물은 0.60%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294.69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9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원/달러 환율 하락, 미증시 강세장 진입 등 긍정적인 매크로 환경 2. 미국 AI 주 강세가 국내 관련 수혜주들에 미치는 영향 3. 이차전지 업종의 강세가 수급에 미치는 영향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가 26.1 만건(예상 23.5 만건, 전주 23.3 만건)으로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며 고용시장 약화 기대감 확산. 연속실업수당 청구건수는 175.7 만건(예상 180.2 만건, 전월 179.4 만건)으로 하락하며 실업자들이 여전히 일자리를 구하기 쉬운 환경임을 시사했지만, 연말로 갈수록 실업률이 연준 전망치 중앙값인 4.5%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

또한 유로존의 1 분기 GDP 확정치가 -0.1%(예비치 +0.1%, 4 분기 -0.1%) 기록하며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로 기술적 침체에 진입한 점 역시 ECB 의 추가 긴축 명분을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아직 인플레이션이 높고 실업률이 낮기 때문에 당장 ECB 의 경우 6 월 회의에서 기초를 바꾸진 않겠지만 호주, 캐나다 중앙은행의 금리인상 이후 부각되었던 연준의 추가 긴축 우려는 완화. 이에 시장금리 하락 나타나며 다우, 나스닥에 이어 S&P500 도 22 년 10 월 저점대비 20% 상승하며 강세장에 진입. 빅테크에 국한되었던 상승종목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점이나 최근 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 강세 역시 긍정적인 분위기를 반영.

8 일(목) 국내증시는 연내 금리인하 기대감 후퇴,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성장주 약세, 선물옵션동시만기일로 인한 수급 변동성 확대되며 장중 2,600 선을 하회하기도 했으나 장후반 낙폭 축소 마감 (KOSPI -0.18%, KOSDAQ -0.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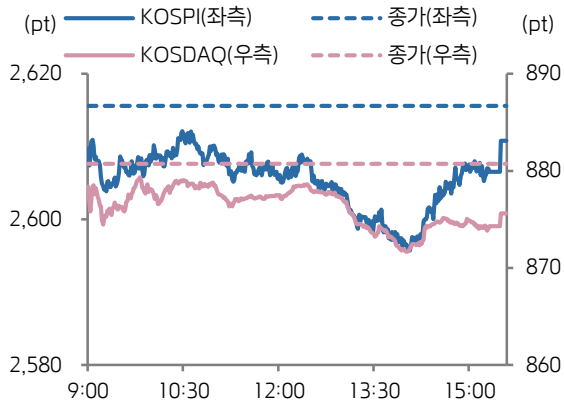
금일에는 다음주 미국 5 월 CPI, FOMC 를 앞두고 관망세가 일부 유입되었으나, 미증시 강세장 진입, 엔비디아, AMD 등 AI 관련주 강세 등이 호재로 작용하며 반도체 업종으로 중심으로 강세 보일 것으로 예상.

최근 미 증시에서 AI 관련주들이 조정이 나타난 가운데 외국인 역시 3 일연속 순매도하며 국내 전기전자 업종 차익실현 지속. 그러나 어제 선물은 7,000 억원 넘게 순매수 했으며, 장 후반에 SK 하이닉스 및 반도체 장비주들 중심으로 매수세 유입되며 2,600 선을 재차 상회. 7 월 FOMC 까지도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매크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투자심리는 아직 훼손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

이와 관련하여 어제 발표된 MSCI 접근성 평가에서 한국은 이전과 동일하게 6 개의 (-)를 받으며 올해 선진국 관찰 대상국 리스트에 등재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후퇴. 현지시간 6월 22일 오후 10시 30분 경 선진국 관찰 대상국 리스트 발표가 예정되어 있음. 등재에 실패하더라도 외신에서는 외환시장 추가개방, 배당절차 개선,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 개선, 그리고 하반기에 이루어질 자사주 매입 제도 개선 등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시차를 두고 정책효과들이 나타남에 따라 추후에 선진지수 편입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바이 코리아 기초는 훼손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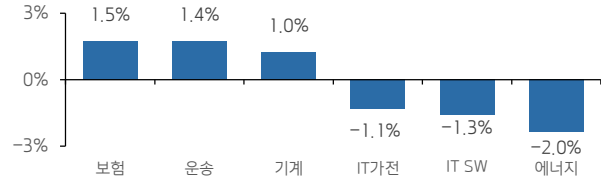
8 일 기준 코스피 선행 PBR 0.94 배에 도달, RSI 지표상 과열 국면에 진입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정이 이어질 여지는 있음. 그러나 하반기로 갈수록 중국 경기 부진에 따른 정책 모멘텀, 한국 전체 수출 및 반도체 수출액 반등, 재고조정 마무리 및 리스탁킹 수요 기대에 초점을 맞추며 금융장세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유지. 이에 따라 낙폭과대 경기민감 업종이나, 올해 실적 개선 기대감 유입되며 최근 강세 보인 조선, 기자재, 상사, 기계 등 수출주들에도 지속적으로 관심 가질 필요.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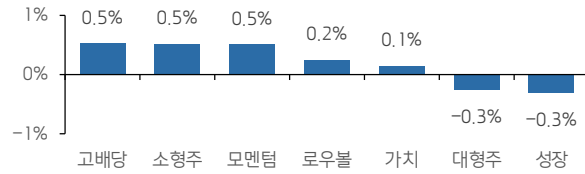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